

중앙언론 통해 사회복지사 이미지 홍보 활발히 진행

알마즈 키르키즈스탄사회복지사협회 국제부 국장

이혁준 객원기자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와 키르키즈스탄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에게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와, 사회복지사들에게 희망찬 2007년이 되었으면 한다. 내 이름은 Almaz Dyikanov이고, 키르키즈스탄사회복지사협회(ASWKR) 국제부 담당국장이며, 현재 Bishkek Humanistic 대학 사회정책학부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키르키즈스탄사회복지사협회는 1997년 9월에 설립되었고, 13명의 중앙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 지부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 4,00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13개의 사회복지시설과 4개의 사회복지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키르키즈스탄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의 역사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구소련연방(USSR)시절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공산당 독재 정권자들은 '소련연방은 사회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빈곤한 사람들이 없는 완벽한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사회복지 발달도 필요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1994년 이후 소련연방이 붕괴되고 나서 키르키즈스탄에 몇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생겨났다. 우리는 집에서 노인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을 사회복지사라고 명명하였고 취약계층을 위한 NGO단체들이 생겨나면서부터 키르키즈스탄에 사

회복지가 시작되었다.

키르키즈스탄 사회복지의 발달을 위해서는 교육, 새로운 기술 도입, 국제적 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높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키르키즈스탄에는 오직 Bishkek Humanistic 대학 사회 정책학부에 사회복지학과가 있다. 사회복지학위와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학부를 졸업해야만 한다.

▶ 현재 키르키즈스탄의 사회문제 중에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쟁점에 대해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말이 있듯이 사회복지측면에서 키르키즈스탄의 최근 이슈화 되는 문제는 가족과 아동들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키르키즈스탄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사회문제들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떠한 준비들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또 현재 키르키즈스탄의 젊은이들은 미래를 위해 자신들의



지난 10월 서울 애플심포지엄에 참석했을 당시의 알마즈 국장

역량을 강화하고 키르키즈스탄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원조를 위해 사회복지발달에 힘써야 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키르키즈스탄 사회-노동부(MLSP), 키르키즈스탄사회복지사협회(ASWKR)는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고자 서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치료

기법, 위기에 처한 아동들에 대한 복지와 같은 복지선진국에서 행해지는 사회복지 교육, 훈련들을 배워오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개발·발전시키고 있다. 다른 측면으로는 정부조직과 비영리 조직·단체들의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키르키즈스탄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또



키르기스스탄 애플센터 현판식에 앞선 기념 촬영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이미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알려진 지가 아직 10년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중들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높여주기 위해 매년 '최고의 키르기스스탄 사회복지사 선발대회'와 같은 행사들을 개최하고, 유명 TV 채널과 라디오, 신문 등에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키르기스스탄 사회복지의 대외적 활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대외 활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며 이번 APPLE 프로젝트를 통한 국제교류와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와의 교류협정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현재 키르기스스탄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대외 활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사회복지사협회는 해외 기부, 교회(예를 들어, Issyk-Kul 지역의 Blaykchy라는 아동들을 위한 센터를 지원해주는 캐나다 자선단체의 기금 또는 해외 교회들로부터 지원받는 Bishkek 지역의 노숙자들을 위한 Kolomto 센터)들, 해외 비영리 단체들과 지속적인 대외

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덴마크사회복지사협회, 스웨덴사회복지사협회와 친밀한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는데 스웨덴 해외 개발 단체(SIDA)가 키르기스스탄사회복지사협회의 지원하에 키르기스스탄에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사회복지 교육, 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는 아시아지역과 협력을 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사회복지사협회와는 '키르기스스탄사회복지사협회 회보'를 출판하는 것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고, 얼마 전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김성이 회장,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이영철 회장,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운동성 회장이 본국에 방문하여 키르기스스탄간의 긴밀한 교류와 APPLE 센터 현판식을 하였다. 특히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와 지속적인 교류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는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였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양국 간의 긴밀한 협조와 원조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APPLE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대외적인 교류와 활동들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이여! 우리는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이며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는다. SW